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김일태 영암군수

## 4000ha 친환경 쌀 단지 조성



김일태 영암군수는 '군민이 행복하고, 군이 잘사는 영암'을 만들기 위해 ▲장조적 농업정책 ▲성장 기반 확충 ▲희망공동체 조성 등 새해군정 3대 추진전략을 밝혔다.

이와 함께 6대 역점과제로 ▲친환경 가치창조농업 정착 ▲지역산업경제 주동력 배양 ▲소득 연계형 농민관련 육성 ▲건강하고 따뜻한 희망복지사회 조성 ▲체계적인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 ▲군민지향적 자치행정역량 강화 등을 확정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한 중단 없는 발전을 지속할 계획이다.

### 쌀 제분공장 설립

군은 친환경 가치창조 농업정책으로 생명농업 확대와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비교우위 농산물 재배확산으로 브랜드 가치를 확장 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4000㏊에 이르는 친환경 쌀과 미꾸리지 및 왕 우렁이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며 1100㏊의 광역 친환경단지를 마무리하는 등 친환경 녹색농업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나간다.

특히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수요자 지향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며 친환경 쌀 제분공장을 전통의 창역역집을 운영중인 (주)에다손과 함께 설립함으로써 친환경쌀 대량소비와 브랜드 가치

향상, 고용창출 등 일거삼득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김 군수는 "영암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7만 군민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불산단 등 산업기반 시설을 보완·확충해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군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활 향상 지원으로 안정 공동체를 구현하고 취약계층 복지혜택 강화로 공존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무한복지를 목표로 복지시책을 펼쳐 나간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을 증진하고 다문화 가정과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며 삼호읍에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어린이·다문화 도서관을 건립한다.

삼호읍 일원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인 '서영암 신발 전계획' 수립과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 ▲4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제공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삼호읍 용왕리에 49억원을 들여 4층 규모의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해 근로자 복지를 크게 개선해 나간다.

### F1 주변 관광 개발

군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활 향상 지원으로 안정 공동체를 구현하고 취약계층 복지혜택 강화로 공존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무한복지를 목표로 복지시책을 펼쳐 나간다.

군은 기업도시 개발과 영암 F1 코리아그랑프리 개최에 따른 인근 지역 발전전략 및 추진과제 발굴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대불산단 공공디자인 개발과 공장용지를 확대하고 공원 및 녹지대 관리를 통한 산단환경을 개선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제공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삼호읍 용왕리에 49억원을 들여 4층 규모의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해 근로자 복지를 크게 개선해 나간다.

/중부취재본부=이상희기자 lsh@

전남 중부권

## '작약' 겨울에도 꽂힌다

강진농기센터, 재배기술 개발

겨울철에도 수확 가능한 작약꽃 재배 기술이 개발돼 농가 수익증대가 기대된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는 지난 2007년부터 3년간의 작약 개화기술 개발에 나서 최근 겨울이 1월에도 생산할 수 있는 절화(折花) 작약개발에 성공했다. 그동안 작약은 뿌리를 약제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들 어 결혼장식용으로 쓰이며 절화 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절화 작약은 그동안 개화시기 조절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시도됐으나 보편적인 촉성재배 개화시기가 3월 말이나 4월초까지 밖에 도달되지 않았다.

m당 수익은 ▲장미 8만5000원 ▲파프리카 14만원 ▲수국 10만원인데 반해 절화 작약은 20만원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일반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약과 달리 절화작약은 하우스재배를 해야 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660m<sup>2</sup>(200평)가 적절한 면적이며 저온장고 재배기간이 필요한 만큼 창고시설 비를 감안해 3년후부터는 4000만 원 수확이 가능하다. 강진군은 현재 2농가가 시작한 절화작약 재배확대를 위해 젊고 의욕이 있는 20농가를 선정해 종묘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재신 연구사는 "국내 절화 화훼류 시장에서 40% 점유율로 7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진군에서 한겨울에도 생산이 가능한 작약절화 생산으로 점유율과 생산액에서 눈에 띠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칠희기자 choul@



### 세 얼굴

#### "직원 만족도 높여 서비스 차원 높일 것"

김상권 장흥우체국장



"우편소통 품질한상과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김상권(57) 장흥우체국장은 "명랑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우편·금융서비스를 한 차원 높여 나가겠다"며 "직장내 '즐거운 일터 동아리방'을 운영해 직원내부 만족도를 높여 경영성적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고흥 출신

인 김국장은

지난 1985년 광주시 청에 서 공직을 시작해 1998년 부처간 이동을 통해 우정사업본부로 옮긴 후 순천 우편집중국장, 구례, 보성, 순천, 광양우체국장 등을 역임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 풍영정천, 도심형 친수공간으로

광산구 '고향의 강' 선정...67억 투입

광주 수완지구의 상징 풍영정천이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진 도심형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광산구는 지난 7일 국토해양부에서 공모한 '고향의 강' 사업에 풍영정천 개발계획이 선정돼 국·시비 67억원을 확보했다. '고향의 강'은 지방하천을 흥수에 안전하면서 풍부한 물과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지방하천정비 사업이다.

구는 풍영정천이 '고향의 강'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하남대교~골웃교

/중부취재본부=기준태기자 wtkeee@

### 전 북



#### "문화 계승발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순창문화원(원장 김기곤)은 지난 7일 문화원 사무실에서

신현승 부군수를 비롯한 기관 사회단체장, 명예회원, 역대 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가졌다.

강천산 음용수 우수성 확인

순창군, 항산화 성분 밝혀

순창군 강천산 음용 온천수에 맞는 우수한 알칼리 흰원수로 밝혀졌다.

순창군은 강천산 음용 온천수의 우수성을 밝히기 위해 세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7일 주민 64명을 대상으로 항산화효과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강천산 음용 온천수와 다른 먹는 샐물의 비교분석을 통해 강천산 온천수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의료적 음용 효능성 평가 등을 통한 전문적 자료확보를 위한 것이다.

강천산 온천수는 수질과 성분검사 결과 음용수 기준에 맞는 우수한 알칼리 흰원수로 밝혀져 대기업의 생수 공장 등을 유치하는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강인형 순창군수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 순창 장류 글로벌 브랜드 육성



"새해에는 민선5기 공약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순창군 발전의 조석을 디지는 해로 설정하고 고 힘찬 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인형 순창군수는 "지난해는 장류의 특성화된 산업형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순창 장류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11년도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2년연속 선정되고 농업농촌, 복지분야 등 14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그동안 순창군이 행정력을 결집해 추진해 온 핵심전략사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 150여명 일자리 창출

우선 군은 누구나 일하고 잘사는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5억 원을 투자해 15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편리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고 순창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가주택 전기내선 교체 및 안전점검 실시와 함께 재해 사전예방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 앞서가는 농업농촌을 이끌 전문인력 육성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 확대, 잘살고 행복한 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집중 육성으로 소득기반을 확충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를 '귀농인 유치기반을 뿐

확대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여기에 서울대와 공동 주민자치대학 운영으로 수준 높은 맞춤 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며, 옥천인재 숙의 이자чин 운영으로 미래의 순창을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주력해 미래의 밝은 순창을 꿈꾸고 있다.

### 셋째아이 '무상 보육'

새해 군정기운데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사업이 눈길을 끈다. 군은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셋째자녀 이상의 영유아 시설(어린이집) 보육료를 모두 부담하는 '무상 보육'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만 0~5세로 부모와 아이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보육시설 이용자이며 연령에 따라 17만~35만원을 지원받는다. 순창군의 영유아 수는 1510명으로 이중 시설 이용자는 6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형 군수는 "순창'하면 빠놓을 수 없는 장류와 장수산업으로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순창장류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 건강장수의 산업화 기반 마련에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품격 있는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은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다양한 노인 참여 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원확대 ▲독거노인 유·케어(U-care) 지역센터 운영으로 모두가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전망이다.

이밖에도 녹색성장으로 청정한 순창을 만들며,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 가꾸기를 통해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학교숲 조성을 통한 녹지

## 구제역 난리 속 中 골프여행 잇단 비난

전북시민단체, 도의회 의장 사과·사퇴 촉구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시점에서 중국으로 골프 외유를 떠난 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은 하루빨리 복귀해 사과하고 민생을 보살피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김 의장은 지난 4일

도의회가 도민에게 일하는 모습과 성과를 보여줄 것이며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벌이겠노라 선언했다"면서 "그러나 하루만에 번복하고 민생을 버린 채 외유를 떠나 구제역으로 가슴을 쫓아는 주민의 위통수를 찾다"고 비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서울 출장이라 속이고 해외 골프여행을 간 김 의장은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의장직을 사퇴하리"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구제역으로 도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5일 오후 지인 등 네 가족과 함께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골프여행을 떠났다.

<광주일보 1월8일3면>

특히 김 의장은 애초 의장 비서실과 도의회 사무국, 기자 등에 개인적인 일로 서울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뒤늦게 시인해 비난을 받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 450년 해로 '부부 느티나무'

전북도 보호수 지정...정읍 상징물 '화제'

백제가요 정읍사(井邑祠)의 밭원지인 정읍에 또 하나의 부부에 상징물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해 12월 전북도 보호수로 지정(9-4-29)된 태인면 낙양리 외이마을 '부부 느티나무'.

금실 좋은 부부처럼 서로 감싸 앉은 형상을 하고 있는 이 '부부 느티나무'는 450년 수령으로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져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시는 보호수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주변 정비사업과 외과 수술 등을 통해 보호·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읍 지역에는 신정동 정애미를 부부나무를 비롯 모두 56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됐다.

군은 '두드림'이 밭줄한 직원을 중심으로 3개팀 24명으로 구성된 '두드림'은 10월말까지 ▲농촌발전방향 ▲지역개발 ▲문화관광산림 분야 등에 대한 과제를 선정해 아이템을 발굴하게 된다. 밭줄된 과제는 정부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와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